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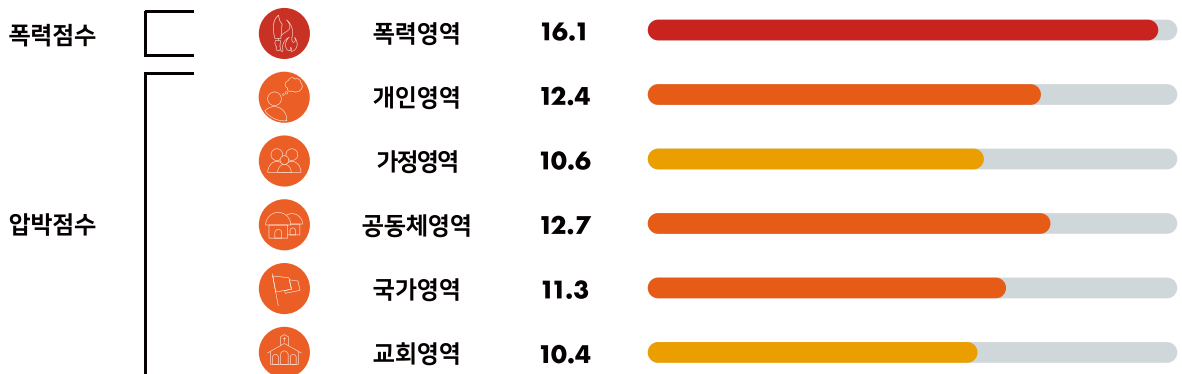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방글라데시 (BANGLADESH)

기독교 박해지수
24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방글라데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의 출신 배경이 무슬림, 힌두교, 불교, 부족/민족 집단 등 네 갈래로 나타나는 드문 국가 중 하나다. 이들 개종자는 극심한 제약, 차별, 폭력에 직면한다. 대부분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가정교회나 비밀 모임을 구성해 예배를 드린다. 무슬림 다수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 교단조차도 공격 및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부족 출신 기독교인은 민족적 소수자이자 종교적 소수자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지니며, 토지 강탈과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무슬림 로힝야 가운데 기독교인은 그들 공동체로부터 괴롭힘과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국외로 도피한 이후 발생한 사회 불안은 힌두교도와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소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종자에 대한 많은 공격 사례는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마드 사하부딘 추피 대통령

인구 : 174,701,000명

기독교인 수 : 950,000명 (OD 추정치)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50,000	0.5
무슬림	155,361,219	88.9
힌두교	16,195,663	9.3
불교	1,253,212	0.7

출처¹

방글라데시는 불안정한 역사를 지닌 비교적 신생 국가로,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 이후 민간정부와 군부가 번갈아 권력을 잡았으며, 선거는 반복적으로 폭력 사태를 동반해왔다. 점점 더 많은 국제 관측자들은 방글라데시가 2015년 이후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로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다.

2009년부터 장기 집권해온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강경 통치로 알려져 있었으며,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학생 시위를 계기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후 하시나는 인도로 망명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ohammed Yunus)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2024년 4월 기준,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는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89%가 대부분 수니파인 무슬림이라고 추산하였다. 전통적으

로 기독교 공동체와 정부 간 관계는 양호했으며, 하시나 총리는 2014년 7월 가톨릭 여성 1명을 개인 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세속 언론인과 다양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일련의 살해 사건은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최근 수년 간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은 힌두교도(9% 수준)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단체 또는 강한 이슬람 중심 문화로부터 즉각적인 압력을 받는다.

무신론자나 인권 블로거에 대한 살해 위협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DW, 2020년 8월 24일). 한편 관찰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실종 사건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정부와 보안 당국으로 하여금 감시를 받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2022년 6월, 오랜 역사와 명성을 지닌 인권단체 오디카(Odhikar)의 재등록이 거부된 것은 이러한 국제 압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독재적 편입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오디카의 공동 설립자들이 2023년 9월 다카 사이버 법원으로부터 각각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정부가 통치력과 대외 이미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Benar News, 2023년 9월 14일).

¹ 데이터 출처: Zurl, G. A. &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인 가운데 약 절반은 로마 가톨릭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 교회는 전국에 걸쳐 교구를 두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치타공 힐트랙(Chittagong Hill Tracts)의 소수 민족 부족 지역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인다. 개신교 교단으로는 침례교, 브레드런, 루터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하나님의성회, 그리고 성공회와 감리교 연합 교단인 방글라데시 교회(Church of Bangladesh)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의 98%가 벵골인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 차크마(Chakma)와 같은 소수 민족도 존재한다. 또한, 치타공 힐트랙에는 가로(Garo), 산탈(Santal), 바움(Bawm) 등으로 구성된 '힐 부족(Hill Tribe People)'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힐 부족은 당국으로부터 방치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수 집단에 의해 토지 강탈, 주택 및 경작지 파괴와 같은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부족이자 기독교인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다른 부족으로부터의 공격도 상시적인 위협 요소다. 실제로 2023년 4월에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기독교인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 특히 다양한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치타공 힐트랙(Chittagong Hill Tracts)은 무슬림 다수와 불교도 소수 양측에 의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간과된 주요 피해 지역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또 다른 피해 지역이 생겼는데, 이는 방글라데시가 인접국 미얀마에서 넘어온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끝단에 위치한 콕스바자르(Cox's Bazar)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이들을 충분히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국 송환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난민들이 캠프에 장기간 머물수록 일부가 이슬람 급진주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군사정권이 남아 있는 로힝야 소수민족을 계속해서 탄압함에 따라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도 막혀 있다. 난민 캠프 안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로힝야인도 있으며, 이들은 점점 강해지는 압력과 폭력에 시달리지만 도피할 방법이 없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집단에는 대사관 직원과 섬유 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급진 이슬람 무장세력의 감시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미얀마 출신 로힝야인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집단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방글라데시 성공회(Church of Bangladesh, 성공회 계열)가 포함된다. 이들은 자주 위협을 받고 감시당하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부족 출신 등 다양한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가장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도 강한 압력을 받으며, 종종 비밀리에 모인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집단에는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 교단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는 주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자주 위협을 받고 때로는 폭력적 공격도 당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적 억압과 독재적 편집증의 결합

방글라데시의 정치는 아와미 연맹(Awami League)과 방글라데시 민족당(BNP) 간의 적대적 대립 구도로 점점 더 지배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표를 얻기 위해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요구에 굴복해왔다.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소수자들은 많은 이슬람권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폭력의 증가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종종 희생양이 되곤 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폭력의 전력이 있는 급진 이슬람 단체들과 방글라데시 민족당(BNP) 간의 연계가 알려졌다라는 점이다.

종교적 민족주의 — 불교도와 힌두교도, 그리고 민족·종교적 적대감 및 씨족 억압과 결합

방글라데시 내 불교도 수는 기독교인의 거의 두 배이며, 힌두교도는 10배가 넘는다. 불교도는 주로 인도 및 미얀마 국경 인접 지역의 토착 민족 집단 내에 분포해 있다. 최근 들어 부족 출신의 차크마족(Chakma, 불교도)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지역 사회와 불교 및 부족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 확산을 막으려는 급진 불교도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힌두교 공동체 다수에서는 지역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힌두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방글라데시는 계층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사회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박해에 취약하다. 개종은 전통과 종교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여성의 생계와 생활이 남성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폭행, 강간, 강제 결혼이 흔하게 발생한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납치와 강제 결혼은 모든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난민 캠프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특히 취약한 공간으로, 미얀마의 폭력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 기독교인 여성들에게는 더욱 불안정한 환경이 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강제 결혼
- 폭력 - 성적

남성

방글라데시의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이 가족 내에서 먼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게 만든다. 가족 내 가장으로 인식되는 남성은 종종 먼저 박해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구타, 협박, 허위 고소, 구금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무슬림 지도자들의 압력은 남성들이 집을 떠나 도망치게 만들기도 한다. 남성이 가족의 주요 생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투옥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체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 투옥 사례는 아직 드물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유산 또는 재산 박탈
- 허위 혐의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4	74
2024	26	71
2023	30	69
2022	29	68
2021	31	67

전체 점수가 3점 상승한 주된 원인은 폭력 지표가 2024년 WWL에서 14.1점에서 2025년에는 16.1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8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와 그로 인한 사회 질서 붕괴로 인해 기독교 관련 시설(특히 학교)의 폐쇄 사례가 증가했다. 평균적인 압력 수준도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들에 의한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관용 저하가 '국가영역 (national life)'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에서 81일간 지역 구금시설에 수감되었던 무슬림 출신 개종자가 석방되었다. 그는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유일한 사례가 아니며,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 **2024년 4월 15일:** 방글라데시 남동부 지역에서 한 목회자의 가게가 파괴되고 약탈당했다 (오픈도어 캐나다, 2024년 4월 18일 보도).
- 2024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반반란 작전의 일환으로 최소 12명의 바움족(Bawm) 기독교인이 치타공 힐트랙(Chattogram Hill Tracts) 지역에서 사망했다 (UCA News, 2024년 9월2일 보도).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구금된 기독교인	기독교인의 사유 재산이 훼손되거나 압류된 건수
2025	13	14	151	64
2024	10	6	1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이 신앙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개종자들은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 살며, 가족에게 개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들은 정기적으로 괴롭힘, 따돌림, 협박을 당한다. 가족의 압력과 사회적 감시로 인해 다른 기독교인과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가정을 꾸릴 권리는 항상 보장되지 않는다. 기독교 예식은 종종 폭력적 군중에 의해 방해받는다. 기독교인 학생이나 개종자의 자녀의 경우, 교육 과정에서 이슬람 교과목에 대한 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이슬람 학생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비무슬림 학생에게는 차별로 이어진다. 기독교인 교사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개종자의 자녀는 여전히 이슬람 수업에 참여하고 이슬람 교재를 사용할 것을 강요받는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은 수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주변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급진 이슬람 세력의 압력은 지역사회가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급진 단체들은 취약한 가정을 표적으로 삼아 자녀를 위한 금전, 식량, 교육 등을 미끼로 개종을 유도하려 한다. 개종자 집단을 겨냥한 폭력 시위 또한 최근 수년 사이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72년 방글라데시 헌법 제28조 1항이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또는 출생지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는 공공 고용에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학생들은 이름만으로 종종 평가받으며, 실제로 기독교 신자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식 이름 때문에 이슬람 종교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 영역

방글라데시 헌법 제41조 1항 (a)은 시민이 자유롭게 종교를 신봉하고, 실천하며, 전파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교를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자발적인 이유로, 외부 압력 없이 종교를 바꾸었다는 내용의 서명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독교인, 불교도, 힌두교도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 이 절차는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다. 반면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개종 등록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총리의 축출과 그에 따른 사회 혼란은 기독교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종교 소수자의 권리가 얼마나 보호될 수 있을지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새로 들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교회 영역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심화되면서 활기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다수의 급진 이슬람 단체들은 기독교 회를 감시하며, 전도를 의심받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가족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로부터도 강한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보복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슬림 출신 개종자의 세례 집례를 꺼리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방글라데시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방글라데시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 위협과 자녀 양육권 박탈 위기에 놓여 있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은 공공 부문 고용에서 제약을 받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ICCPR 제25조 및 제26조, ICESCR 제6조)
- 기독교인은 신앙에 대해 말하거나 전도 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의 대상이 된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방글라데시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IRFR)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종교 소수자 공동체 지도자들은 정부가 디지털보안법(DSA)과 같은 법률을 활용해 종교 소수자, 특히 힌두교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무슬림 대종의 '종교 감정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에서, 법원은 보복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보다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수자에게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된 이후, 힌두교 소수 집단은 아와미 연맹(Awami League)과 연관되었고 그 보호를 받아온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오픈도어의 방글라데시 사역

오픈도어는 방글라데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기독교인이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과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
- 현지 언어로 된 성경 및 기독교 문헌을 제공
- 문해 교육과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 제공
- 박해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